

제433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2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2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2

(14시36분 개의)

○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주관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 실사 수감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고,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정된 해외 출국 일정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14시37분)

○위원장 김교흥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명분으로 무려 26조 원에 가까운 추경안이 이번에 제출돼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문체부 관련 예산, 우리 문체부 소관 예산도 보면 거의 5800억 정도, 대규모 추경예산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큰 예산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이 사전에 우리한테 전혀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체부 소관 예산 내역, 추경예산 내역이 저희한테 보내진 것이 불과 어제입니다. 채 하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체위 검토보고서 어젯밤 늦게 저희가 입수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추경예산 심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앓아 계시지만 검토보고서 만들 때 충분히 사전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토보고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문체부로부터 자료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저희도 공식적인 자료는 어제 받았고요. 가안으로는 뭐 하루이틀 전에 받아서 이렇게……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가안이라도 여야 위원들한테 같이 제공이 되었어야지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전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됐으면 이 회의 자체를 충분하게 사전검토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주셨어야 되는데 어젯밤 늦게 검토보고서 나왔는데 바로 오늘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추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우리가 통과시킨 여러 가지 본예산 사업들도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항상 집행부진 사업들이 있었고 거기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또 일부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지난 본예산 사업들의 집행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업들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한 건도 그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문체부로부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번 추경 심의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

대로 된 우리 문체위의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큼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흥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큼니다. 아마 이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어찌 됐든 좀 속도를 내서 이번 4월 10일 날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그런 거를 깊이 인식하셔서 그 부분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먼저 졸속 추경심사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표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추경안과 검토보고서가 하루 전에 제출됐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로부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1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왜 안 되는지, 왜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듣지도 못했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문체부 추경 규모가 5842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7조 8000억과 비교하면 7%가 넘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 숙의도 없이 삭감·증액 의견이 있으면 하루 만에 제출하라 이게 터무니없는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생경제 어려워져 전쟁을 앞두고 전쟁위기 극복 추경이라 말하지만 이것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유치, 중화권 관광 시장 확대 예산의 경우 본예산은 46억 원인데요. 추경이 306억 원입니다.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657%가 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6배가 커요. 거기다가 중국시장 홍보·마케팅 예산 208억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 예산이고 민생 예산입니까? 이거 누구 배불리려고 이러는 거지요?

숙박할인권 사업도 본예산 편성 뒤에 매년 아예 기금 변경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여야가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본예산 심사 왜 합니까? 추경에 얹어서 급하다고 이름 ‘전쟁 추경’ 하고는 사실은 이상한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어젯밤에 주고 오늘 위원들 검토도 못 하게, 그러면 위원들 바보 만드는 추경이잖아요. 추경은 본예산의 우회·편법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더욱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다음에 본질의 때 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효용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업, 수요조사나 철저한 사업 설계가 선행돼야 되는 사업, 중장기 사업 이런 거를 전쟁 추경이라고 그러고 썩 끼워넣은 게 지금 이 문체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졸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애써 주시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흥 조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여간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광 부분이 중동전쟁 이후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광, 콘텐츠 등 위기산업 지원과 기초예술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K-컬처 산업의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총지출 규모입니다.

당초 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은 7조 8555억 원이며 추경 증액을 반영한 지출 규모는 8조 439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547억 88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136억 8300만 원 등 총 68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958억 500만 원, 영화발전기금에 745억 90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3454억 1000만 원 등 5158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해서 총 584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당초 4300억 원에서 문화계정 내 청년 콘텐츠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500억 원을 증액한 4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중 콘텐츠 분야 우수 인재 연계 기업 인턴십 사업에 2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 인력난 해소와 예술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내 문화관 청년인턴 지원에 14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여 급증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역의 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사업은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사업에 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문화활동지원 사업 중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계기 청년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당초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증액하여 총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도 320억 원 증액한 600억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7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예술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양질의 신규 작품 제작과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시각 분야 우수 기획전시 지원 10억 원, 공연예술 분야 신작 육성 10억 원, 시각예술·공연예술의 지역 창작공간 지원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예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예술인력 육성 사업 중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39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연예술관람 지원을 통한 공연업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에 5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영화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영화 창제작 사업은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에 260억 원,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에 8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44억 9000만 원 등 총 38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79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화정책지원 사업은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361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6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 641억 9300만 원에서 숙박할인권 지원 112억 4000만 원, 근로자 휴가지원 6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8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 등 관광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산업 융차지원 사업을 2800억 원 증액하여 총 924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환율 인상 등 관광여건 변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화권 시장의 국내 유치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에 3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78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청년관광두레 사업의 신규 발굴과 지원을 위해 5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사업은 관광 분야 산업현장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업은 영세 관광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선도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콘텐츠, 관광 등 위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 소비가 아니라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투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되어 국민과 산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조성하여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출자금 신규 추진에 따른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 및 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은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이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7번 사항입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은 예술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사사업인 스포츠기업 융자 사업의 2025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3번입니다.

영화정책지원 사업은 6000원 상당의 영화관람 할인 지원금을 600만 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영화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흥행작의 부재, 높은 관람가격, OTT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 등이 해결되어야 영화관의 부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5번입니다.

관광산업 융가지원 사업은 관광사업자의 융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시설자금 및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5843억 원 규모의 추경이 제출됐는데요 고유가·고물가 경제상황에서 민생, 산업 피해 지원을 위한 긴박한 예산들이 적시에 제출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추경 편성안에 체육 관련 예산이 없어요. 특히 문체부 추경 재원의 43.6%인 2318억 원을 체육기금에서 쓰면서 스포츠·체육 분야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스포츠 소비 진작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처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증액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체부에서도 장관 이하 차관께서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추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추경 정부안에는 융자와 정책금융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서 직접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장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장관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필수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추경 편성하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제가 봤는데 타당성조사 사업이 2건 있어요. 노벨문학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1억 증액 요구, 이게 필수적인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조은희 위원 시간 좀 다시 해 주세요. 실컷 했는데 못 들으시면 어떡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

○위원장 김교흥 다시 시작하세요.

○조은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필수 조치라고 그랬는데 장관님, 노벨문학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1억 증액 요구가 필수적인 사업입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사업을 제가 처음……

○조은희 위원 노벨문학센터 건립. 노벨문학센터 건립은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노벨문학센터 건립……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K-디즈니 인재양성 사업, K-디즈니 인재양성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2.5억, 이것 필수적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허락하시면 1차관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추경안에 문학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디즈니 그것은 저희가 안 갖고……

○조은희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은희 위원 빠졌나 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처음 듣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처음에 있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또 여쭙게요.

대통령 주재로 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하셨지요? 여기에서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1년 앞당겨서 2029년 조기 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은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다변화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306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46억인데 추경은 306억 원을 증액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6배나 늘어납니까? 설명해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관광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핵심산업 중 하나고요. 또 내수를 촉진하고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특히 고유가 때문에……

○조은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고유가 때문에 먼 곳을 가는 여행보다는 가까운 곳을 가는 여행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제가 도표를 보니까요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 이유가……

- 조은희 위원 우리는 중국 관광만 해요? 배보다 배꼽이 6배나 커졌는데 중국 시장 홍보 마케팅에 208억 원을 합니다. 왜, 왜, 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속도가 지금 무지하게 빨라지고 있고요, 또 일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 수가 3000만 중에 중국 관광객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3000만에서 얼마를 차지할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 조은희 위원 예측이 왜 안 돼요? 지금 615만 명이지요. 지금 615만 명 오는데 왜 우리 예산을 전부 다 거기에 몰빵하냐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목표가 3000만이기 때문에 아직 3000만에 대한 인구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올해 지금 그렇지요.
- 조은희 위원 지금 2036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 조은희 위원 2036만인데, 중국이 615만인데 왜 거기다가 예산을 몰빵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중국이 한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적당히 하셔야지 왜 6배나 몰빵하냐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반값여행 하듯이요 외국인 1명이 오게 되면 쓰는 돈의 효과가……
-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중국인만 되냐고? 605만 명이 오고 있는데 왜 중국인을 위해서…… 왜 다른 나라는 안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당연히 다른 나라도 해야 되지요.
-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추경이라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런데 중국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삭감하셔야 돼요. 잘못된 추경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내수 진작과……
-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왜 중국 사람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민생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쓰는 돈 대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지금 저희는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조은희 위원 그걸 누가 믿겠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는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 조은희 위원 통계 주세요. 통계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몇 명이 더 오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예산보다 6배나 뺏기기했는데…… 중국 사람이 605만 명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6500만 명이 오는 건지 통계를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삭감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예산이 민생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요 자료를 가져 오시라고요, 피 같은 돈 쓰시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예산심사할 때 문체부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서 스포츠, 특히 체육 분야는 아예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소위 때 따져 보겠지만 먼저 정작 필요한 예산은 아예 넣지도 못한다, 이건 좀 지적할 만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취지, 장관님도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이 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문체부 제출자료 보니까 예산이 스포츠 분야는 50억, 공연 분야는 60억, 총 110억 정도의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센터부터 암표 적발 시스템, 신고 포상금 지급 이런 여러 가지 필수적인 항목들이 진행돼야 8월부터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지고 시행일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예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시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제 시장 규모도 보면 스포츠 분야 불법 암표 시장은 벌써 연간 180억 원 규모, 이게 잠정적인 수치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스포츠 인구 자체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월드컵을 비롯해서 계속 예정된 일정들에 국민적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또 공연 분야 암표 시장 예상 규모는 552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 암표 시장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정된 법이 있고 시행일을 벌써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시급한 추경이라고 해서..... 그러면 법을 누가 지키려 할 것이며 누가..... 이것 뭐 겁이나 나겠습니까, 암표 근절이라는 말만 화려했지.

지금 시행되는 단계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벌써,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준비 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필요한 이 예산 자체를 반영도 하지 않고.....

작년에 이 법안을 준비할 때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뿌리를 뽑아 보자고 그랬고 정부도 이번에는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누가 바로잡겠다는 정부 얘기를 믿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공약을 얘기하고 정책을 발표한

들 최소한도의 준비 과정도 없이 시행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만들고 막상 필요한, 가장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예산조차도 아예 반영이 안 돼 버리면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자체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따져 볼 건 따져 보되 조정할 건 조정하시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건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연, 콘서트 그리고 스포츠에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이 암표를 근절하는 일은, 그걸 바로잡게 되면 내수도 촉진되고 민생 안정에도 크게 도움되고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전 준비도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고 싶었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 기재부하고도 충분히 싸울 건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사실 유가 이런 특정된 부분만 될까 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기조를 민생 안정으로 잡고 하는 것은 방향은 옳게 잡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학교예술강사와 관련된 것이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민생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문체부가 또 예술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학교를 가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23년, 24년, 25년 다 줄어서 예술강사 월평균 수입을 따져 보면 23년에는 143만 원이었는데 26년에 68만 원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예술강사로 계속 살고 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서울 경기 대전 이런 데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을 또 안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올해 아예 시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체부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숫자로 보는 삶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1시간도 수업을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특히 강사로 증액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체부에서 의지를 좀 많이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하면 제안설명 하실 때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해서요. 저희 의원실에도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한 번 했다가 반려되고 한 번 했다가 반려되고 증명 인정이 안 되고, 그게 3~6개월 걸리고 이런 문제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토론회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랑 이번 추경에서는 좀 긴급하게 하더라도 이걸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먼저 학예강사 말씀을 드리면요 학예강사 처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원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추가로 국비에서 한 80억…… 8억 정도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 부분 역시 협의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사업 리스트에 올려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활동증명은 올해 갱신 주기가 다가와서 더더군다나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원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사람들을 더 증원하고 시스템도 개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급하게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위기가 너무 큼니다. 민생 위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대단히 크고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시점에 바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 충격을 극복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해가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유가로도 나타나지만 모든 공급망의 붕괴가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삶, 특히 청년들 또 중앙보다는 지역에 추경예산이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오늘 준비해 오신 추경이 적재적소에 맞는 추경을 준비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마음에 좀 걸리고요. 이 문제는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님이 방금 나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 1년에 약 9만 명의 관광객으로 오셨던 분들이, 그

리고 한한령이 본격화됐던, 사드 문제가 터졌던 16년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약 800만 명으로 굉장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한한령 이후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약 10만까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것이 한국 관광산업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희가 약 1000만 명 중반대의, 중국에서 8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다가 그 숫자가 팬데믹 이후에, 또 한한령이 일정하게 내용적으로 좀 정리된 이후에도—아직 한한령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이제 겨우 회복된 게 600만 명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국제정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새로운 관광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집중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예산을 좀 집중해서라도…… 저희가 16년도에 800만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회복됐다고 해서 600만입니다. 만약에 천만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만 불 이상의 실질적 소득을 갖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수를 약 6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을 와 본 사람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6000만 명도 한국을 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의 한국 관광이 현실화되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벽 그리고 지원책들이 만들어질 때 한국관광산업이 큰 날개를 달 수 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 협조하실 필요도 있지만 문체부에서 선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 아니면 유인책들을 많이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산업에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기대응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데 문예기금 958억, 영화기금 746억, 관광기금 3454억, 겹으로 보면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육기금 전입과 여유 자금 활용에 의존한 돌려막기 성격이 강한 게 맞거든요. 특히 문예기금과 영화기금이 이미 고갈 직전에 이르렀다고 제가 작년부터 예결위에서도 강조를 계속 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도 했었지요. 현장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2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게 미래 재원을 앞당겨 쓰는 방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기금을 소진하는 임시 처방이 아니고 기금을 다시 회복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입니다. 구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국민의 삶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전쟁과 글로벌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라는 배에 구멍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개의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막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 그리고 도구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구멍을 임시로 막는 데에만 집중이 돼 있고 그 이후

대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단순히 소비 영역이 아니라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단기적 피해 지원을 넘어서 디지털 유통 구조 개선, 창작자 수익 배분 구조 혁신, 관광 콘텐츠 시장의 체질 개선 등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단순히 버티는 것, 이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빨리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시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유 파동이 계속될지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갈지 확실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멍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만큼 많이 벌어들여서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K-문화가 물이 들어온 시점에 더 크게 도약할 준비를 하는 계기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추경이 단순히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고 위기 이후에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솔 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예술인 복지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현재 두 달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갱신 주기가 돌아와서 재등록하는 분이 많아져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본 결과 예술인 복지센터에 인력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물리는 시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술인 복지센터는 집에 못 갑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일차적으로 심사인력을 보강했음에도 더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편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추경 관련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장관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전쟁 추경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저가 관광호텔 확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민생경제의 시급한 추경이라고 보십니까? 105페이지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랑 추경이랑 관련이 있냐라는 걸 여쭙보는 거예요.

장관님,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을……

○진종오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체육 관련해서도 분명히 복지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섯 가지 안건인가 올라갔는데 지금 추경에 다 배제됐어요. 아시지요, 내용? 아시나요, 정확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종오 위원 보니까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고령자 스포츠 바우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빠졌는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서는 조금 뒤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 관광객이 615만 명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연에 몇 명이 오고 몇 월 달에 집중되는지 통계를 제출한 다음에 우리를 설득해야지 어저께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몇 월에 집중되고 몇 명이 오고 어느 국적의 해외 관광객들이 집중되는지 이런 통계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는 추경의 목표에 맞게끔 저희가 돈을 쓰면 그만큼 충분한 효과가 빠르게 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진종오 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지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내용을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와 근거 자료들, 저희가 예측하는 자료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중저가 호텔 확충 관련한 말씀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진종오 위원 여기 지금 사업 추진 경위에 있는데 장관님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진종오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체육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기금에서 전출해서 지금 다른 분야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육 관련 부분들도 이번에 내수진작 혹은 일자리 또 민생 회복에 필요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항목을

확보해서 사업을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했는데 다시 최종안에서 빠져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장관님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모범적인 답변을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체부에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체육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체육계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흥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이번의 추경 기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수진작과 민생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동발 전쟁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또 윤석열 정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융자 사업 비중이 추경 예산이 30%였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3년 50%, 24년 70%, 25년 63%, 융자보다는 직접 지원 사업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첫 장관으로서 어느 쪽 기조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융자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추경이라는 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서 62%, 70% 가까이 다 융자 지원 추경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계 직접 지원 중심으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기획예산처하고 다시 논의하셔서, 저희가 내일모레 금요일 날 문체위 예결소위가 있습니다. 그때 답을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기조가 진짜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야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5843억 중에서 체육 예산이 빠져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장관님도 이거 잘못되었다는 기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 분야 일자리, 프로스포츠 관람권, 대통령 지시 사항인 동계 종목 훈련시설 조성 등 약 945억 원에 해당하는 체육 예산이 통째로 미반영됐습니다. 얼마 전 동계스포츠 끝나고 그 선수들

과 함께 오찬 자리를 마련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빠졌어요.

이 부분도 지금 체육 분야 예산 현황 및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이거 가져 오실 게 아니라 본추경 예산에 넣으셔야지요. 얘기가 돼서 넣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필요하다라고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가져다 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틈간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 반영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장관님, 이번에 2026년도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관전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다녀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공연 관람권 등 소비 진작 명목으로 58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공식 개막전 가셨을 때 빈 좌석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전석이 매진됐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주말 경기 전석 매진됐습니다, 전 지역마다 다. 그렇다면 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왜 빠졌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비 진작 명목으로 공연 관람권에는 586억이 반영됐는데 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관광기금 3454억, 문예기금 1028억, 영화기금 746억을 편성했는데 체육기금에서 약 2318억이 나가요. 체육 예산은 하나도 추경으로 반영되지 않고 체육기금으로 2318억이 나가는데 체육기금이 화수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고 더욱이 현재 체육기금 현금 잔액은, 제가 장관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액이 10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식, 채권 다 적금 들어가 있는 거 해지 해서, 해약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 문예기금·영발기금 이런 데다가 주려고 만들어 놓은 체육기금 아닙니다. 체육인들이 순수해서 그런 건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10년 넘게 1조 2000억 원 이상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예기금부터 시작해서 지원 사업으로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인프라, 아레나 체육시설 하나 짓자라고 하는데도 기획예산처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 기획예산처하고 철저히 논의하셔서 이틀 뒤에 예결소위 때 필요한 사업으로 가져오시지 마시고 202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여타 분야로 오히려 기금을 전출해서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체육 쪽에, 특히 이런 스포츠 관람 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성화에 도움이 되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라는 데 대한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이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

○위원장 김교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이번 추경이 전쟁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위해서 시급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 위원회 회의 석상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전혀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박하게 돈을 뿌리기 위해서 한 추경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이 추경안이 편성됐느냐? 일단 앞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자료조차도 어제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문체위 행정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에도 심지어는 추경 총액 같은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틀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 중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평가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감액요구된 사업들까지 증액해서 온, 말 그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 홍보 마케팅 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657%, 거의 70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이번 추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시급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혈세를 가지고 중국인들 짐 캐리 서비스까지 우리가 돈을 대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국인 환대부스 서비스에서도 기존 예산의 2배나 책정을 했지요. 중국인만을 위한 크루즈 개항지 문화사업, 크루즈 개항지에 문화공연 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로. 그것 48억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밖에도 늘 문제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소비쿠폰이라든지 나눠 주기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만 저조할 뿐 아니고 필요한 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또 그 분야의 활성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평가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문화예술쿠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증액을 시켰고요. 이 부분의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도권에 과잉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수도권이 84%입니다. 서울만 84%입니다. 지금 지방은 거의 공연예술 관련 지원사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집행률이 그동안 부진하다 보니까 1인 최대 10매씩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 때도 50만 장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그러면 5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극단적으로는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건지 또 최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더 늘릴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영화쿠폰은 영화산업에 공연쿠폰은 공연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청년두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업인데도 이번에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두레사업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농촌에 청년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관광사업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르신들이 포함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청년으로 한정시키다 보면 오히려 두레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계상의 잘못된 점들을 확실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국가유산청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턴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체부뿐만 아니고 국가유산청 쪽에도 문화재돌봄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발굴·보존처리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다는 거고, 이런 데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국가유산청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이걸 말할 것도 없고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자체가 일시적인 나눠 주기식 사업보다는 앞으로도 훨씬 효과가 더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 저희가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기간 중에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잔액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김교홍 1000억이 좀 넘지요.

○박정하 위원 1000억 정도, 아까 또 임오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5800억 규모인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준비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추경에 대한 정부 쪽에서의 방향이 선 이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대강 얼마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3~4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3~4주 정도 준비했는데, 예산부처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국채 발행 없이 이번에는 순수하게 세입만 갖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냥 국민체육진흥기금 갖고 여기저기 막 뿌려 쓴 것 같은 흔적이 보여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억밖에 남지 않은 체육진흥기금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 쓴 거잖아요. 장관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질문의 취지처럼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기금은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의 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쪽 문체부 쪽 분야는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 좀 과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과하게 있었다고 장관님도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 또다시 충당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은……

○박정하 위원 충당계획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체육기금을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문예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박정하 위원 여러 가지 방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문외한이라 그런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임오경 간사님 말씀하신 예적금 같은 거예요? 그것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털어 가지고 여기저기 쓴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유감입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영화쿠폰 이런 것 많이 만들었는데 좋은 영화가 없어서 영화관을 안 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다양한 요인들이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왕과 사는 남자’ 지금 1500만 넘었다고 하던데, 제대로 된 영화 만들면 다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또 여기저기 막 뿌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극장이 어려워지면서 영화티켓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기금으로 진출을 해서 예술산업 금융지원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하고 있는 분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사업근거 해당 없음, 사업기간 해당 없음, 추진경위 해당 없음, 뒤의 관광진흥기금도 그렇고 영화발전기금도 그렇고 다 그래요, 49페이지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뭘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뿌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업근거도 없이 지금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몇백억씩 갖다 넣지요? 이걸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마저 말씀드릴게요.

1분만 더……

그리고 모순적인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쭙니다, 사업근거가 하나도 없다니까. 민생지원을 위해서 융자성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에 500억, 예술인생활안정자금에 320억, 이렇게 등등이 잡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도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 그런데 근거가 없으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보가 있거나 사업능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이런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사업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박정하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담보능력 없고 사업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주면 그냥 뿌리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모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전출과 관련된 이야기여서요 그게 사업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전출이든 어쨌든 쓰여지는데 이게 이만큼 가면 사업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기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추진경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 주고 말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걸 사업이 아니라 재원 쪽 얘기……

○박정하 위원 뒤에 75페이지 정도 가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모순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여쭙는데 여기도 보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사업목적은 좋은 얘기, 사업근거는 어디의 5의2호,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쓰겠다예요. 뭘 어떻게 쓰겠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추경을 할 거고 어려운 전쟁 기간에 이걸 가지고 생활안정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이 페이지와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박정하 위원 주시고요.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할 건가,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예, 차관님이 주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걸 기금 간의 전출이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800억 융자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시설에는 5년 거치 7년 상환 그리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박정하 위원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다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은 평소에도 그런 용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는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고 아마 작년도에 수립해서 금년에 시작하는 일반예산에도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작 그런 것도 못 하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추경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것 못 받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확인 결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어려운 중소기업, 대부분 그 위주로 다 용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명심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주실 건지…… 제가 볼 때는 모순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대강이라도 설명을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위원장 김교흥 예산심의할 때 문체부에서는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통계치나 설명 부족,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 4월 3일 금요일 날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도 이미 예산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이소희 위원님은 질의 안 하셔도 되지요?

○이소희 위원 예.

○위원장 김교흥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2명의 기관장이 있는데 그중에 하형주 이사장은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그래서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라는 불출석사유서를……

○위원장 김교흥 간사님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임오경 위원 예, 합의를 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체육기금에서 1028억이 문예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임기 동안 문예기금은 고갈 우려 속에서도 체육기금 등 타 기금의 전입으로 겨우 버텨 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체육기금에서 1028억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도 않고 작년 국감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임기 내내 기관장으로서 책임도 다하지 못한 인사에게 임기가 끝난 뒤 두 달이 지났음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까지 후임자 인선을 하지 못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장들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가볍게 보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앞으로 상임위의 예산·결산·추경 심사와 같은 중대한 일정에는 소관기관장들이 반드시 출석해 기관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엄중한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장관에게 다 하지 못한 얘기 중에서 5843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기금을 빼게 되면 저희가 한 3600억 정도더라고요. 지금 문체부에 3600억 정도밖에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은 문체부장관으로서도 역할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화·예술·체육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같음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우선 정병국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동의했다 그래서 제가 허가를 한 건데 뭔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임오경 간사가 얘기한 것을 장관께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융자든 정책금융사업 예산이 너무 커요, 이 추경의. 그래서 직접지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정부 추경안의 여러 부분이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2월 달에 저작권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5월부터 시행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해외 모니터링 인력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명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안에 꼭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고.

임오경 간사님이나 박정하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임오경 간사는 어저께 저한테 얘기한 거네. ‘왕사남’ 같은 경우 지금 156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역대 3위를 기록했다는데 우리가 중예산 영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 반영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산업 전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작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요. 독립영화, 중예산도 필요하지만 대작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관께서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가유산청장이 안 나오셨는데 기후위기로 산불 증가, 올해 3월까지 보

면 2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국가유산 피해도 최근 5년간에 549건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고 위험 징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서 이 부분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안 된 예산인데 생활체육지도자와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들 처우개선 문제, 이것도 이번 추경안에 빠져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세요.

○김승수 위원 앞서 조은희 위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추경 취지나 요건과 걸맞지 않게 항상 추경 때 보면 지역예산이 끼어들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서 조은희 위원이 지적한 예산은 빠졌다 하더라도 지역예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목록을 소위심사 전까지 죽 뽑아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지역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문체부에서 검토의견도 소위자료에 이것은 그냥 ‘불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심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빠진 예산들, 예를 들면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술강사 같은 경우에 손술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24년 대비해서 작년도 예술강사 인건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인건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이 지금 싹 빠졌는데 국가유산청 쪽에서 증액할 만한 필요성이 시급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국가유산청의 증액 필요 예산은 사전에 소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증액 예산들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줄속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번에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집행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최소한 소위심사 전까지 소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4월 6일 월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심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기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손솔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박정하 손 솔 이기현 이소희 임오경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청가 위원(4인)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관광정책관 강동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송시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박용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진중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9)

3월 30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진중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진중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3)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4)

이상 8건 3월 31일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3)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4)

이상 5건 3월 31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